



표지사진 :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 지역의 구호를 위해 JTS에서 파견된 긴급구호단과 현지 자원봉사자가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모습

JTS 통권 60호 2006년 7·8월

펴낸날 : 2006. 7. 3

펴낸이 : 법 료

만든이 : 김경희

도운이 : 서동우, 전성지, 현희련, 양한석
이미경, 정한정, 김애경, 유명규
김순연, 장성호, 김옥희, 김현미
정유석, 박경미, 김영자, 윤경숙
박연옥, 김정희, 홍은실, 이유나
배명숙

펴낸터 : (사)한국JTS

주 소 : 137-875

서울시 서초구 서초3동 1585-16

정토회관 2층

전 화 : (02)587-8995, 587-8756

전 송 : (02)587-8998

E-mail : jts@jts.or.kr

인터넷 : www.jts.or.kr

디자인·제작 : 신명기획 ☎(02)2273-6128

인도 동게스와리 소식

4 동게스와리에서 보낸 여름 한 철

지금 북한에선

8 5월의 라선은

특집 -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역 긴급구호

10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국내소식

15 2006년 기획이벤트2

19 JTS 사진전을 마치며

후원의 소리

21 통일돼지를 키우며 - 울산 구영초등학교

따뜻한 이웃

24 옷가지들을 차안에 싣고

활동보고 및 안내

27 인도지원사업

북한지원사업

필리핀지원사업

국내사업

32 라진·선봉 유치원, 탁아소 결연현황

34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36 신규회원(개인, 단체)명단·물품후원

38 특별기부금 명단

40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명단

43 사) 한국JTS기금사용 결과 보고

46 CMS 신청안내

동게스와리에서 보낸 여름 한 철

김원자 | 지바카 병원 결핵파트



삶은 무더위(45℃~50℃)를 피해 지바카병원 결핵파트가 방학을 하고 파라미타 그룹과 보낸 3주간이다. 파라미타 그룹이란, 수자타 아카데미 10학년을 수료하고 1년간 학교, 병원, 사무국 등 각 파트에서 1년간 활동을 하고 있는 8명의 자원활동가를 말한다. 사무국에서는 이들이 활동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헬쓰워커 (Health Worker) 교육을 준비하여 “의사가 없는 곳에서”(Where There Is No Doctor (WTND))를 교재로 학습을 시작하면서 함께 이름을 지었다. 동게스와리의 발전을 이루는 밑거름이 되자는 바람을 담았다.

5월 29일부터 3주간 파라미타 그룹 트레이닝이 시작되었다. 남자 아이들은 학교에 기숙을 하면서 밤에는 순찰을 돌았다. 오전에는 공중보건(Public Cleanliness in Dhungeswari)라는 주제로 공중보건에 대한 연구와 실행, 타자연습, 오후에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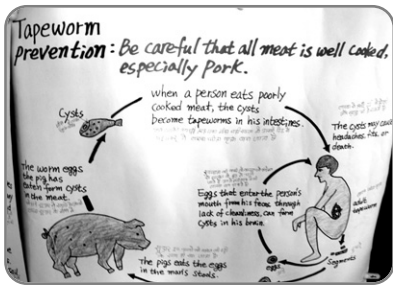
WTND 학습을 하고 마음 나누기를 하였다. JJ브라더(김정준)가 전체 진행을 맡고, 나는 진행을 보조하며 타이핑 수업을 진행하였다.

가까스로 기억을 되살려 20년 만에 마주친 타자기의 기능들을 알려주었지만 아이들은 고맙게도 나를 타이프 미스트리라고 불렀다. 타자기가 잘 안될 때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는 한다.”를 연발하며 연습을 계속하도록 격려했다. 고장 난 키도 많고 기능이 잘 되지 않는 타자기로 공부해준 아이들에게 미안하고도 고맙다. 어느 날엔가 컴퓨터 자판기 위에서 날개를 달 그들의 손을 그리며 작은 위안을 한다.

이삼년 심한 가뭄에 시달려온 이곳에 드물게 이삼일 줄기차게 내린 비로 근처 가야와 이곳 등계스와리에 홍수가 났다. 쓰레기통과 화장실 만들기의 계획을 세우고 있던 파라미타 그룹 계획도 현실의 긴급한 사안에 맞춰 항로를 변경하였다. 우기 대비 대청소 및 도로보수 쉬람단, 기생충 교육 및 구충제 지급, 수해가옥피해조사 및 짚단 보급에 나섰다.

나는 까미슬지, 마헨드라와 한 조가 되어 마을을 방문하여 기생충교육을 하기로 했다. 따라, 메가 시스터와 함께 그러두었던 기생충 감염경로와 예방에 관련된 포스터를 활용하기로 했다.

6월 14일 소라즈비가에서였다. 이른 아침부터 마을 쉬람단이 크게 진행되고 있었다. 마을 앞 도로를 정비하는 중이었다. 풀밭 나무와 나무 사이에 빨래 줄을 매고



기생충 예방에 관한 포스터



수해를 입은 초기집



자그디스푸르 마을 쉬람단에 참석하여 두엄지리를 치우고 있는 파라미타 그룹



짚단을 머리에 이고 웃음짓는 마을 사람들

그림을 달고 준비하는데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어쩌면 사람들이 끝도 없이 줄을 이어오고 아이들은 왜 그렇게도 많은지... 4-5살 되어 보이는 조무래기들도 손에 연장을 들고 흙을 담을 그릇을 들고 모여왔다. 탈리(밥먹는 쟁반)를 들고 온 아이는 바닥에 깔고 앉았다.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 웬지 기분이 좋아졌다. 바람이 불어 그림 자료가 뒤로 나부꼈다. 그림 하나에는 뒤쪽으로 자전거를 옆으로 세워 바람에 못 날리도록 하고 그림 둘은 청소년 노동학교(YSS) 학생 하나와 내가 뒤쪽에서 잡고 섰다. 나뭇가지 하나를 땅에서 주워 건네주니 까미스와르지(지바카 병원 의사)가 설명을 시작한다. 모여든 사람들 숫자를 세어보니 150명이 조금 넘었다. 사람들 모습이 내 눈에는 너무 아름답게 보였다. 마헨드라에게 사진 찍는 법을 가르쳐 주니 재미있어 하며 열심히 찍었다. 까미스와르지는 청소년노동학교 학생이 들고 있던 알벤다졸(구충제)에 대해 설명하고 교육을 마쳤다. 나는 마지막 순간에 앞에 나가 사람들에게 알벤다졸을 꼭 먹으라고 당부하고 고맙다는 인사를 하였다. 부녀자들과 많은 아이들을 보면서 다음에는 꼭 가족계획에 관련된 교육이 실시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좀 덜 굶주리겠지 생각하며...

6월 16일 빠완 마헨드라와 한 조가 되어 자르하리의 수해 피해 가옥을 조사하러 갔다. 자르하리는 동게스와리에서 가장 먼 마을이고 처음 가본다. 햇볕은 따가운데 마을은 안 보이고 길은 끝이 없다. 마헨드라가 잠시 돌아보며 땅에 놓인 마른 가지 나무를 치워준다. 발에 찢리지 말라고 하는 세심한 배려다. 학교를 떠난 지 2시간이 넘어 자르하리에 도착했다. 6학년 딜립이 나와 안내를 해준다. 부분적으로 새로 짚



단을 엮은 집도 눈에 띄지만 한결같이 도움을 바라며 호소를 한다. 되도록 더 가난한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이 몫이며, 방은 몇 개며, 땅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가족은 어느 정도 소유하고 있는지 묻는다. 그리고 주로 벽과 지붕의 파손상태를 살핀다. 정오가 될수록 햇볕이 너무 따가워 가는 집마다 본능적으로 그들을 찾게 된다. 스물네 집 조사를 마치고 12시가 넘어 자르하르를 출발하여 학교로 돌아오니 두시가 가깝다. 씻고 나서 늦은 점심을 먹고나니 몸은 돌처럼 무거운데 나누는 것에 대한 기쁨이 마음을 가볍게 한다.

6월 17일 빠완과 함께 짚단을 나누어주기 위해 트랙터를 타고 만코시힐로 향했다. 두 대 트랙터에 실은 2,900개의 짚단을 4사람에게 배분하였다. 어느 한 사람이 자기 집은 없느냐고 몇 번이고 확인을 한다. 바산트 만지네다. 집이 전부 무너진 바산트 데비네는 있지만 바산트 만지네는 구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마음에 자꾸 걸려 조금 남은 여유분 짚단과 100개 들이 짚단 한 뭉치를 주기로 했다. 아무래도 짚단이 조금씩 여유가 있어 남을 것이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고마워하며 받는다. 걸어서 학교로 돌아오는데 만코시힐에서 조금 벗어난 길에 짚단 하나가 떨어져 있다. 바산트 만지네 주려고 얼른 주워 팔에 안으니 빠완이 웃는다. 한참 먼 길을 짚단을 안고 학교로 돌아왔다. 바산트 만지네를 주고 싶은 그 마음을 안고...

파라미타 그룹과 3주간 함께 보내며 동계스와리의 현실을 파악하고 아이들과 함께 고민하고, 의료에 대해 공부하고, 마을을 방문하여 실태를 조사하면서 많이 배웠다. 힌디말도 조금 늘고 아이들과도 많이 친해졌다. 부처님 마을에 심어놓은 작은 나무가 조금 자란 듯도 싶다. 또 언젠가 파라미타 그룹의 아이들이 인도JTS의 주인이 되어 활동하게 될 날을 그리는 소망도 함께 자랐다.

● 김원자님은?

2006년 2월, 인도JTS로 파견. 현재 지바카병원 걸핵파트에서 활동하고 있다. 40대 후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소녀같은 웃음과 시적인 마음을 지녔으며 지치지 않는 활동력을 지닌, 정열적인 여인이다.

5월의 라선은

편집부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은 지난 5월11일부터 5월21일까지 열흘간 북한을 방문하고 돌아왔다. JTS 북한사업 중 가장 중요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및 농업지원 모니터링과 라선시 승리화학기업병원에 의약품과 기초 의료기기를 추가 지원하기 위함이었다.

현재 북한의 상황은 긴급구호 차원은 아니고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개발구호로 넘어가야 한다. 서로 간에 신뢰와 믿음이 형성되지 않으면 앞으로의 개발구호사업을 펼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북한측에 투명성을 강하게,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북한측도 서서히 JTS의 사업방식을 이해하고 함께 맞춰나가기 시작하고 있다.

어린이 영양식 지원을 위해 5개 유치원(신안, 청계, 신흥, 상현, 선봉)을 방문했다. 이번 유치원 방문을 통해 실질적인 어린이 영양식 수요조사를 하고 추가 지원 내용을 모니터링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활기차 보였다. 그러나 부족한 것은 여전히 많았다. 학용품이나 문구류는 물론 교실도 부족

하고, 기본적인 약(소화제, 항생제, 비타민 등)도 없고 여름이 되니 음식을 보관할 냉장시설이 없는 것도 아이들 건강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 번 방문 때는 영양식은 물론 필요한 문구류, 손퐁금 등 약기류, 냉장고, 기초 약품 등을 지원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 4월 초음파 등의 의료 장비를 지원한 승리화학기업 병원을 방문했다. 이번에 라신을 방문할 때 가져갔던 의약품 30여 종과 기초 의료기기(수술칼, 수술가위, 핀셋통 등)를 전달하고 지난 4월 지원된 의료장비를 모니터링했다. JTS가 지원한 의료장비는 아직 통



관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고 병원에는 들어오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북한 주민들 사이에 남한의 의료장비가 들어온다는 소문이 퍼져 진료를 받으려는 사람들이 대기해 있다고 한다. 이미 검진을 받은 사람들도 남한의 좋은 장비로 다시 검진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지원을 통해 북한이 남한에 대해 좋은 인식을 가지게 된 것이 참으로 소중한 경험이란 생각이 든다. 2005년 지난 해 연말 라선시에 있는 14개 진료소를 방문했을 때 기본적인 의료기기는 물론 약품상자도 텅 비어 있고, 그나마 남아있는 기기들은 모두 녹슬어 사용하기 어려운 것들 투성이였다. 이번에 지원한 의약품들이 북한 주민들의 건강을 되살리는데 요긴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인도네시아 긴급구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인도네시아 지진피해지역 긴급구호 활동보고」

지난 5월 27일 인도네시아 자바섬 중부에 리히터 규모 6.3의 강진이 발생하여 6천2백여명이 사망, 7만5천명 이상이 부상당하고 50만 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6월16일 자료). 이에 JTS에서는 긴급회의를 소집, 5/29 긴급구호팀을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으로 파견하였고, 국내에서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거리모금 캠페인을 동시 실시하고 해외에서도 거리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6월 14일까지 집계된 후원금은 총 ₩76,928,050원과 \$2,687이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현장에서 진행된 JTS의 긴급구호활동과 지원현황을 들어본다.

긴급구호 현장일지

● 5월 30일

인도네시아에 도착해 반톨 지역의 외곽 지역을 돌기 시작했는데, 산길과 교통량이 많아 움직임이 더디었다. 이 지역의 마을들은 보고됐던 가옥 80%가 아니라 100% 망가진 마을들이 많았다. 혹 가옥이 망가지지 않아도 무너질까 겁이 나서 집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없었고 지진 당일 후에도 수백차례 계속되는 여진으로 주민들은 긴장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전체적으로 여러 단체들의 구호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내국인들이 개인별로 찾아와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가장 피해가 집중된 지역은 반톨이었지만 상당분의 구호활동이 반톨로 집중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뒤늦게 피해의 심각성이 알려지고 있는 클라텐으로 이동을 했다.

클라텐 외곽지역의 시골마을에 들어갔는데 반톨 만큼 피해가 심하지는 않아도 대부분

의 집은 거주하기 힘들 정도로 무너졌다. 물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았다. 마을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은 거의 텐트(천막), 담요, 돛자리, 쌀, 램프 등이었고, 식용류와 손전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마을의 환자는 모두 다 병원으로 이송 된 상태였다.

● 5월 31일

마을조사를 한 뒤 천막과 깔개 등 거주에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여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현지의 히카부디(Hikmabuddhi)라는 학생 불교단체를 만나 활동과 정보를 공유하고, 지원물품의 가격조사에 들어갔다. 통역은 족자시의 Gadjah Madah 대학 학생들이 도움을 줬는데 우리가 여기 있는 동안 함께 활동을 하기로 하고 학교 안에 탁구실로 쓰이고 있는 교실을 임시창고로 빌리게 되었다. 유엔과 정부 그리고 다른 단체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매일 저녁에 있는 유엔모임에 참석하였다.

● 6월 2일

트럭에 구입한 물품을 싣고 현지 자원활동가 12명과 동행하여 클라텐, 웨디, 텐켄지역에 담요용 천, 천막, 플라스틱 돛자리 등을 지원했다. 처음에는 개인별로 지급 했으나 여러 마을에 구호물품을 전달하는 동안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나중에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불러 놓고 이장에게 물품을 내려 주고, 마을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을 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분배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품을 배부하는 모습

● 6월 5일

여기 인도네시아에도 윤력의 개념이 있는데, 고통 로용(Gotong Royong)이라하고, 마을에서 가장 손상이 적은 집부터 하나씩 고쳐나가는 방식으로 진행 하였다. 아직 그곳에서 공구를 지원하는 단체가 없어 우리가 지원하기로 했다. 긴급구호 활동을 하면서 불교학생연합 사람들과 함께 일하니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이야기 해주어서 힘이 많이 났다.

● 6월 7일

포토로노라는 반툰 지역이지만 피해중심부에서 떨어진, 그러나 도시에서 크게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지역을 돌아보고 거의 도시 빈민촌처럼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놀랐다. 주민들은 벽돌을 만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았고 지원 흔적은 거의 없었다. 남은 천막과 공구를 이 주변에 분배하기로 결정했다. 6월 8일에는 지구촌공생회 김동훈과장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이윤희 팀장이 합류하여 조사 및 배분작업을 함께 하였다.

● 6월 12일

약 40개의 마을(마을당 약 40~60가구) 1,800여 가구에 천막 1,065개, 공구 35 세트(세트당 삽(10), 양동이(6), 빠루(2), 해머망치(2) 등 포함 - 마을 1개에 1세트), 돛자리 (깔개) 925개를 5차레에 걸쳐 배분하였다. 주로 다른 단체의 손길이 덜 미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분을 하려했고, 앞으로 3-4개월 후에 우기가 시작되면 또 문제가 생기는데 그때쯤 다시 돌아와 2차 지원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인도네시아 지진 피해를 위한 거리 모금 캠페인

우리가 배분을 했던 물품들은 정성이 많이 담긴 물건들이다. 한국에서 거리모금을 해서 모은 돈이고, 인도네시아 현지에서의 물품구입도 여러 사람들, 특히 현지 대학생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많은 도움을 주어 마련한 것이어서 너무나 귀중한 물품들이었다. 연일 계속되는 긴급지원에 피곤함이 몰려왔지만 절실히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기 위해 정성을 기울였다. 현장에 물품들을 잘 전달

했고, 인도네시아에 후원을 해주신 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기만 하다.

인도네시아를 다녀와서

양한석 | JTS 국제부



긴급구호 물품을 전달하는 필자

인도네시아에서 돌아온 날 목욕탕 수면실에서 잠결에 들리는 한국말에 의아해 하면서 어느 구호단체인가 하고 귀를 기울여 들으려 했습니다. 다음날에도 새벽에 눈을 뜨면서 내가 일어난 곳이 인도네시아가 아니라는 사실에 잠시 어리둥절한 걸 보면 마음과 생각은 몸보다 뒤늦게 인도네시아를 떠난 듯 합니다. 처음으로 파견된 긴급구호 현장. 지진이 일어난 토요일 저녁부터 뉴스를 보며 상황을 기록 하면서 설마 내가 파견되리라는 생각은 상상도 못했는데 어느새 끝난 인도네시아에서의 JTS 활동이 기억에 생생합니다. 현장에서 바쁜 일정에 정신없이 지내다 돌아와서 본 뉴스에 메라피 화산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또 아직 유엔에서 지진 관련 활동 소식을 메일로 받다보면 내가 거기서 할 일을 다 끝내지 못하고 왔나 싶기도 합니다.

2주라는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공부를 하고 왔습니다. 계속 어려움에 부딪치면서 걸림이 되는 상황들은 내 모습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었습니다. 현장의 활동이 가능할 수 있게 기부금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의 노고와 현지에서 우리를 도와줬던 활동가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한두 번씩 생기는 나의 오판과 상황의 변화에 좌절을 했고 저녁이 되면 기진맥진해서 숙소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항상 우리가 필요물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정

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있나하는 생각이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상상, 그리고 TV에서 본 모습과는 많이 달랐던 현장이었습니다. 온 마을이 주저앉은 가운데 군데군데 세워진 천막집과 병원 복도 바닥을 가득 메운 환자들, 그리고 지진으로부터 서서히 회복되어 가는 도시와 상황에 적응하고 다시 밝게 웃고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그 와중에 수해대상 파악, 물품 구입, 그리고 분배를 하느라 바쁘게 하루하루를 지냈고 피해가 심하지만 외곽지역이라 도움을 아직 받지 못한 지역들을 찾아 동분서주 했습니다.

많은 단체들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가장 놀라웠던 모습은 단체들이 아니라 현지인들의 서로 돕는 모습이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용달차, 봉고에 긴급구호 식량, 물품을 싣고 피해지역으로 달려가고 어느 면에서는 NGO들보다 더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듯 했습니다. NGO의 손길이 아직 미치지 않았다는 산골마을에 들어가서 답사를 하면 벌써 현지인과 교회, 모스크(이슬람 사원)를 통해서 비록 부족하더라도 물품이 이미 조달되어 있었고 정말 어느 지역에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는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는 수백 명의 인부를 자원봉사로 보내 마을에 들어와서 재건을 하고 있었고 대학생들은 동아리 활동을 하듯이 구호물품을 모아 전달하고 우리도 역시 물품 가격을 조사하는 중 얇은 이불을 보시 받기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족자카르타의 공립대학인 Gadjah Madah 대학생들 15여명은 처음부터 끝까지 물품구입과 조사, 그리고 분배까지 함께 도와줬고 인도네시아 불교학생연합회인 Hikmabudhi에서는 우리와 새벽6시 일정을 함께 하기 위해 새벽에 3시간 떨어진 도시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오기도 하면서 자기 일처럼 헌신적으로 도와줬습니다. 모두가 참 밝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햇볕에 찌든 험상 궂은 얼굴의 인부들도 웃으면 그렇게 맑은 웃음을 보일 수가 없었고 비록 대부분 JTS라는 이름은 기억을 못하지만 이 물품들은 한국 사람들이 돈을 모아 보내주는 선물이라는 말에 '꼬레아!' 하며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시하는 마을사람들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도왔던 경험은 앞으로의 활동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2006년 기획이벤트2

인도모자보건을 위한 프로젝트 “아기에게 생명을 엄마에게 건강을”



3, 4월에 진행되었던 기획이벤트1 북한농업지원을 위한 ‘희망의 비료보내기’에 이어 이번 5월~6월에는 기획이벤트2 ‘인도모자보건을 위한 행복프로젝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하루 종일 돌을 깨는 작업으로 얻는 수입이 1달 러도 되지 않는 인도 동게스와리지역의 어려운 환경에서 생활하는 신생아와 산모를 위한 행사로 아기에게 분유와 예방접종을, 산모에게 식량과 파상풍예방접종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5월 13일에는 전국에서 동시에 캠페인이 진행되어 총 241명이 참가하여 6,964,540원과 1위안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또 6월 17일에는 방송인 모임인 ‘길벗’ 동호회원들이 인사동에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나눔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이날은 17명이 함께 했으며 880,380원과 6달러, 1엔의 성금을 모았습니다. 지금도 전국에서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으며 꾸준히 기부금이 모이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인도모자보건을 위한 행복프로젝트에 함께 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006년 5월 전국 모금 현황〉

지역명	거리모금횟수	거리모금액	기부자수	기부금
서울	10	5,659,178	26	4,770,000
동래	10	1,093,070	0	0
해운대	3	889,600	3	130,000
대구	2	873,030	5	278,000
대전	3	1,046,650	11	1,110,000
청주	2	429,360	16	350,000
마산	13	2,315,100	5	180,000
울산	2	772,400	6	310,000
광주	6	1,583,010	4	95,000
제천	4	380,590	0	0
기타	1	15,000	9	710,000
총	56	15,056,988	85	7,933,000

※모금 총액 : 22,989,988원

● 서울

인도 어린이의 어머니가 된 방속작가 노희경님, 영화배우 배종옥님 그리고 처음 준비부터 여러 가지로 애써주신 성준기 SBS 감독님 그리고... 정토회 방송인 모임인 '길벗' 회원님 들께서 인사동에 나셨습니다.

우리 모두 엄마 품에 안겨 본 추억이 있기에
우리들 대부분이 엄마이기에
가슴 한편 뭉클함을 안고 거리에 나셨습니다.

사전모임에서 충분히 캠페인에 대한 공유를 한 보람이었는데 예전보다 거리에서 덜 분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위 때문인지 몸이 불편한 분들도 있었는데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두모두 고맙습니다.
함께 해서 더욱 좋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하루를 잘 보냈습니다.

● 부산 해운대

인도 모자 보건 관련 영상물을 본 후 거리모금 멘트와 노래를 연습했습니다. “우리 모두 다함께 손뼉을~”이란 노래를 개사해 울동에 맞춰 함께 불러보았습니다.^^

“기아 없는 세상을! 우하하! (짝짝)
문맹 없는 세상을! 우하하! (짝짝)
우리 함께 나누어요! 우리 함께 나누어요!
아름 없는 세상을 우하하! (짝짝)”

삼삼오오 조를 짜서 해운대 해수욕장 주변과 동백섬 누리마루 근처에서 모금 활동을 하였습니다. 또 조선비치호텔 앞



에서는 부스를 차리고 호소력 있는 음성으로 멘트를 해 큰 모금함이 그득해졌습니다.

졸망졸망 가던 길 멈추고 부스를 유심히 보던 여자아이, 전 재산이라며 주머니 털며 모금함에 손 넣으시던 아저씨, 벤치에서 기꺼이 모금에 응해 주시고 맛난 토마토 주신 젊은 할머니들, 천원으로 새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모두의 마음이었습니다.

“보람찬 하루를~”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졌습니다.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도왔다는 그런 마음, 그렇게 방긋 웃으며 아쉬운 철수를 하였습니다. 모두 모두 고맙습니다.

● 울산

울산은 성남동에서 모금을 하였습니다. 준비가 미흡하고 장소가 너무 복잡해 어려운 일정이었음에도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셔서 좋은 날이었습니다. 특히 불교 대학 신입생들의 빛나는 활약이 있었습니다. 더 없이 보람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 부산 동래

전국적인 모금 행사에 부산 동래에서도 부산역에서, 부산대학 전철역 앞에서, 광안리 바다에서 열심히 모금했습니다. 부산역 광장에서는 꼭지점 댄스와 기타 연주 등 춤과 음악을 들으며 너무 즐겁게 모금 했습니다.

● 대전

아직은 이른 여름인 듯 모금 하는 날에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래도 대전의 주요모금 거리인 응봉정이에는 젊은이들의 화사함과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모금에서 유난히



기억나는 분이 계십니다. 한참을 어느 가게 앞에서 있던 남자분이 “여기요~”하며 스스로 다가오셔서 모금함에 천원을 넣어주시더라고요. “여기요~”하고 부르는 소리가 얼마나 반갑던지 아직도 귀에 선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가족단위로 나오신 분들께도 일부러 가보았는데 모금을 거절하실 때 아이들 보기도 민망하고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기도 했습니다.

● 마 산

쉬는 토요일, 창원 용지공원에서 인도 모자보건을 위한 모금을 하였습니다. 인도 옷을 곱게 입고, 세계 어린이들의 삶에 눈을 돌려 조금씩 마음을 내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누구보다 관심을 갖는 건 정작 어린이들이었습니다.



바로 옆에서 아나바다 장터를 열던 한 살림 어린이들이 스스로 물건 판 돈을 선뜻 모금함에 넣어주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고통 받는 친구들의 사진에서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렇게 모은 작은 정성들이 모여 태산을 이루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쓰이면 좋겠습니다. 그 너른 공원을 끝까지 웃으며 다니신 JTS 마산 회원님들, 그리고 조용히 웃으며 간식거리를 한 아름 가져오신 회원 가족들, 엄마를 따라 모금을 열심히 다닌 우리 아기들 고맙습니다.



JTS 사진전을 마치며

현희련 | JTS 홍보부



JTS 사진전에서 감사인사를 전하는 수자타이커데미 전교장 뿌리양카님

지난 3월 JTS 이사회를 하면서 JTS 홍보 사진전에 관한 논의가 있었다. JTS는 사업적 내용은 훌륭한 것들이 많은데 비해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다는 지적들이었다. JTS의 성과를 잘 정리해서 알리면 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돕는데 참여할 수도 있고, 모범사례가 알려지면 타 단체에서도 사례연구를 통해 따라 배울 수 있는 장점들이 있다는 제기들이 되었다. 그래서, JTS 사무국은 사진전을 하기로 결정했다.

이문선 사진작가와 공선주 자원활동가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선정하기 시작했다. 사업설명을 하면서도 사람들에게 강렬하게 각인될 수 있는 사진을 선정하는, 2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다 보니 어려움이 발생했다. 전자가 강조되면 보는 강렬함이 떨어지고 후자가 강조되면 시선을 사로잡는 강렬함은 있는 반면 JTS 사업설명이 조금 부족한 듯했다. 사진선정이 정말 쉽지 않음을 절감했다. 어려운 가운데 사진을 선정하고 프린팅하고 장소답사를 하고.... 일들은 하나씩 착착 진행되어 나갔다.

사진전을 새로운 방식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다. 액자를 하지 않고 전시장 자체를 액자로 사용하기로 했다. 전시장은 창문이 많고 벽면이 없었다. 그래서 창문을 그대로 액자로 사용, 사진과 사진 사이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도 그대로 살리기로 했다.

행사 전날, 사진을 붙이기 시작했다. 아, 웬걸. 생각하던 것보다 실제 부착하니까 눈에 익

지 않은 방식이라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창문들을 액자들로 사용, 창문에 사진을 그대로 붙이니 사진이 작아 보이고 쏟아지는 햇살에 눈에 부셔 사진이 눈에 잘 안 들어오는 듯 했다. 제안했던 이문선 사진작가는 자신감을 가지고 해 나가고 있는데 담당 책임자인 내가 불안하고 확신을 가질 수 없었다. 오전을 지나고 오후가 되자 눈에 익으면서 아주 편안하고 신선하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아, 괜찮구나. 해 볼 만 하구나.

그러나 이미 때는 늦으리. 불안한 보고를 받던 사무국에서 사무국 식구들을 모두 이끌고 대구법당으로 내려왔다. 액자를 대신할 검은색 폼보드를 가득 싣고, 창문의 사진을 뜯어내고 밤을 새워 폼보드에 사진을 붙였다. 드디어 우리의 눈에 익숙한 모습의 사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아침에 사진설명을 붙이고....

이미 어제 새로움을 보았던 내 눈은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도해 본 것으로 만족했고 일을 추진하면서 담당자가 현장에서 확신을 가지고 추진을 하던지, 아니면 결정을 빨리 내려 변경을 하던지 상황판단을 빠르게 해야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 물론 한 가지 일에 모두가 긴급하게 붙어서 해 내는 과정에서 호흡을 함께 맞추고 느낄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 되기도 했고....

2주간의 대구전시회를 마치고 사진들은 서울로 상경, 서울에서 다시 사진전을 가졌다. 조용하게, 대구전시회의 방식대로, 눈에 띄지 않는 약간의 변형을 가하며....

많은 것들을 느끼고 배우게 해 준 전시회가 막을 내렸다. 사진을 정리하며 다음에 하면 정말 잘 할 수 있겠다, 하면서 혼자 슬며시 웃어본다. JTS 15주년, 정토회 20주년 등 뜻 깊은 행사들이 다가오고 있다. 그 때를 위해 위명업을 해 보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활동들이 가능하게 해 준 후원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더욱 알찬 활동으로, 훌륭한 사진전으로 보답하리라 다짐하며...





울산 구영초등학교에서 모금한 돼지저금통들

통일돼지를 키우며

- 울산 구영초등학교 -

이번호에는 2001년도부터 꾸준히 통일 돼지 저금통을 분양 받아 아이들과 함께 모금을 하고 계신 울산 구영초등학교의 이경숙 선생님의 이야기를 실습니다.

통일 돼지 저금통을 분양 받아 모금한 실천 사례를 써 달라는 원고 청탁을 받고 나니 처음엔 내세울 만큼 잘한 일도 아니고 또 어떤 내용을 써야하나 막막해져 내심 글쓰기가 망설여졌다. 하지만 나와 의 인연의 끈에 의해 함께 통일 돼지를 키워왔던 아이들의 슬한 손길을 생각하며 추억 여행을 떠나듯 통일 돼지를 분양하고 모금했던 지난 일들을 떠올려 보았다.



맨 처음 통일 돼지를 분양 받게 된 것은 2001년도였다. 그 때 근무하던 학교가 통일교육 시범학교라서 김순권 박사가 운영하고 있는 '국제옥수수재단'의 옥수수 저금통을 1학기에 전교생에게 분양하여 모금한 일이 있었다. 그 때 내가 후원하고 있는 '좋은벗들'이란 단체

의 통일 돼지 저금통을 아이들에게 분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여름 방학 무렵 '좋은 벗들'에 연락을 취해 방학 과제로 아이들에게 돼지 저금통을 분양하게 되었다. 돼지 저금통을 나누어 주면서 기아에 허덕이는 북한 친구들의 실상을 얘기해 주고 방학 동안에 돼지에게 밥(돈)을 많이 줘서 통통하게 잘 키워오라고 했다. 그 때 시작했던 일이 지금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그 뒤 2001년도 2학기 때는 시범학교 프로그램으로 마침 '좋은 벗들'의 통일 돼지 저금통을 전교생을 대상으로 분양을 한 일이 있었다. 그 때 '좋은 벗들'에서 통일 강좌도 해주고 돼지 저금통을 수거해 가는 행사가 있었는데 그 후부터는 좀 더 당당하게 저금통 분양을 하게 되었다. 그 때는 우리 반 뿐만 아니라 다른 반 선생님께도 협조를 구해 희망하는 아이들에게 저금통을 분양하게 되었다.

그러나 저금통을 분양하는 과정에 애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돌이켜 보면 잊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2002년 겨울 방학을 앞 둔 무렵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된다. 그 때 반 아이들에게 분양할 돼지 저금통을 큰 박스에 담아 옮기던 중에 교장 선생님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그 당시 새로 부임해 오신 교장 선생님은 그 전 교장 선생님과 달리 모금운동 자체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던 분이셨다. 교장 선생님은 교장실로 나를 부르 다음 어떠한 교육적 취지나 의도 따위는 들으려조차 하지 않으시고 다짜고짜 심한 꾸지람을 하셨다. 그 일이 있는 후 어떻게 하면 교장 선생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월간 정토지를 1년간 구독해 드렸다. 그랬더니 정토지를 읽고 감화를 받으셨는지 정년퇴임 후 정토회에서 자원 봉사를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셨다.

그 뒤 지금 근무하는 구영초등학교로 옮기면서 방학 때 뿐만 아니라 학기 중에도 모듬별로 저금통을 분양한 다음 아이들에게 JTS에서 제공하는 영상물을 보여 주고 왜 모금이 필요한지 설명했다. 모듬별로 모았던 돼지 저금통이나 방학 후 모금된 저금통은 1년에 두 차례 수집을 했는데 모아진 금액은 많지 않지만 한 차례씩 모을 때 마다 최소한 12~13만 원에



서 많을 때는 20만 원정도가 모금 되었다.

지금까지의 모금활동을 떠올리면 기억에 남는 고마운 아이들도 많다. 지난 해 1학년이었던 반 아이 준희는 방학 동안 돼지 저금통에 얼마나 열심히 돈을 모아 왔던지 어머니의 말씀을 빌자면 돈만 보이면 돼지 저금통에 넣겠다고 하더라. 그래서 거의 5만원 가까운 돈을 모아 왔었다. 또 지윤이는 시간 날 때면 JTS 홍보 영상물을 보여 달라며 거의 매일 저금통에 돈을 넣기도 했었다. 또 다른 반 아이들이었지만 저금통을 가져가서 꼭꼭 채워 왔던 아이들의 모습도 기억에 남는다.



모금운동을 해 오면서 이 이야기말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나눔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며 사회의 일원으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울 수 가장 좋은 인성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앞으로는 통일 돼지 저금통의 명칭도 바뀌고 사용처도 한 곳에만 머무르지 않는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북한지원이라는 한정

된 글귀가 조금은 모금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도 있었을 것이라 짐작 해 왔는데 이제는 아이들과의 모금운동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다. 나는 교사로서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이 일을 계속할 생각이다. 나와 인연 맺어진 아이들 모두가 돼지 저금통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데 필요한 밑거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다.

옷가지들을 차안에 싣고...

박연옥 | 서울정토회 자원활동가



1주일에 한 번 하는 월요일의 출근길, 전화벨이 울립니다.

어! 낯선 번호네. 어딜까? 본 듯도 하고, 아! 금호동에서 정리되고 남은 옷들을 후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분의 전화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와 달라고 하십니다. 물품 양이 얼마나 되는지를 여쭙습니다. 작은 내 차로 가도 되는지 아님 트럭을 운전해 줄 분을 수소문해야 할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항상 이쯤 되면 ‘트럭운전을 배워야 하는데...’라는 생각을 또 한 번 합니다. 무엇보다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낯은 차로 가도 될 모양입니다. 이제 필요한 다른 일을 좀 하고 금호동 갈 시간이 되는지를 계산해 봅니다. 오늘은 운이 참 좋습니다. 몇 가지 일을 한꺼번에 처리해도 될 것 같기 때문입니다. 우선 출근해서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금호동으로 달려갑니다. 마침 찾기 쉬운 곳에 있습니다. 작은

봉제업체를 운영하는 공장입니다. 큰 비닐과 박스에 담겨 있는 옷가지들을 마음씨 좋아 보이는 사장님과 함께 3층에서 내려 차에 싣습니다. 감사하다며 JTS 소식지 '아름다운 세상'을 전해드립니다. 아동복 등도 후원받을 수 있도록 알고 있는 다른 분들을 소개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눈물 나도록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들이 있어 정말 아름다운 세상임을 오늘 또 가슴에 새깁니다.

강남으로 돌아오면서 JTS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봅니다. 아직 사무실에 물건이 그대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차에 약간의 공간이 있어서 지난 번 후원받고 사무실에 그냥 두고 있는 물품을 마저 실어야겠다고 생각하며 JTS 사무실로 향합니다. 사무실에서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짐 내리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너무도 고마우신 큰 선배님들, 본받고 싶은 분들입니다.

오늘은 내친 김에 용인 창고에도 들르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래도 시간이 안 될 것 같아 일단 포기합니다. 안될 때는 미련 없이 생각을 정리해서 돌립니다. 안 되는 일에는 매달리지 않기로 합니다. 목직한 차를 집 쪽으로 가져오면서 오늘은 더욱 작고 낡은 제 차가 고맙게 여겨집니다. 요즘은 온통 저의 손과 발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화요일 아침, 바쁜 출근길이 끝나갈 무렵 이제 용인 창고로 향합니다. 이제는 많이 익숙해진 길입니다. 처음 지도를 보며 찾아가던 때가 생각납니다. 찬바람이 부는 늦은 겨울 어느 때쯤, 지도와 약도를 번갈아 비교하며 이정표를 보고 또 보면서 낯선 길을 달렸었지요. 빼먹 거리는 창고 문을 열고 간신히 있는 힘을 내어 물건을 옮깁니다. 도와 줄 분이 없으니 당연히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힘들지만 해낼 수 있는 자신이 자랑스럽습니다. 건강한 몸 주신 부모님께 새삼 고마움을 느낍니다.

이제는 100번 고속도로를 찾아 갑니다. 하남에 있는 '금홍팬시'를 찾아가야 합니다. 문구류, 주로 노트류를 주겠다고 하셨다는데, 물품의 양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아무래도 트럭을 불러야 할 거 같으니까요. 약도를 인터넷에서 복사했는데 잘못 읽어서 상일 I.C가 아닌 하남 I.C에서 내렸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지도를 확인해봅니다. 다행히 크게 어긋

나지는 않았습니다. 제법 큰 공장인데 아직 창고 안쪽이 정리 되지 않아 물품을 보여주기 어렵다고 하십니다. 소식지 전해드리며 다음에 전화로 연락드리기로 하고 바쁜 길을 돌아옵니다.

목요일 사무실에 출근하면 몇 가지 일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소식지에 나올 물품을 정리해야 할 테고 또 기부금 영수증 혹은 감사 편지와 소식지 보낼 곳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합니다.

아! 더 큰 일이 기다립니다. 부지런히 공문을 보내 후원해 줄 물품을 확보해야 합니다. 먼저 사용하던 공문들이 너무나 상투적이어서 좀 더 멋진 공문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입니다. 다 만들어지면 제약회사와 분유회사 등 이런 곳, 저런 곳에 부지런히 보낼 겁니다. 제일 중요한 작업이거든요.

청진의 고아원, 인도의 수자타 아이들이 눈에 밝힙니다. 제가 게으른 만큼 그들은 제때에 필요한 물품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생각만 하면 부담감과 가슴 아픔이 목까지 차오릅니다. 하지만 제 힘이 너무 미약하여 주저앉고 싶어질 즈음, 다시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하라는 부장님의 말씀을 위안 삼습니다.

물품을 담당하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우선 트럭을 운전해야 하는데 그것이 자유롭지 못해서 좀 답답합니다. 할 수 없이 오라버니의 힘을 빌렸습니다. 어떤 날은 하루에 송탄까지 가서 아동용 점퍼를 가져오고 또 마석으로 이불을 가지러 가는 등 하루 종일 운전에서 달리게도 했지요. 많이 힘들었을 텐데 사심 없는 봉사의 삶을 조금이라도 살고 싶은 이 동생의 마음을 헤아려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지요. 그 마음이 참 감사했어요.

꼭 이 일이어서가 아니라, 매 순간 무심으로, 비워지는 마음으로, 저절로 일어나는 마음으로 어디서든 살고 싶습니다. 이젠 조금 가능성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물품을 조달하는 일을 통해 제가 조금 더 살려진 느낌입니다. 물론 아직 멀었지만, 제가 조금이라도 성장했다면 모두 이 일 덕분일 것이고 그런 면에서 다시 한 번 이 일과 주변 모든 이들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인도지원사업

● 수자타 아카데미 기숙사 기초공사



수자타아카데미 기숙사 건설 공사는 큰비와 무더운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열심히 일하여 예상보다 일찍 6월 16일 기초공사를 마쳤다.

● 파라미타 자원활동가 그룹 수련 프로그램



5월 28일부터 6월 17일까지 3주간 파라미타 자원활동가 그룹의 수련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수자타 아카데미 10학년을 졸업 한 후 1년간 자원활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파라미타 그룹은 현재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등게스와리의 보건위생 프로젝트, 타자 연습, 의사가 없는 곳에서(Where there is no doctor) 교재학습, 마음나누기, 조식예절, 야간 경비

등을 진행하고 있다.

● 우기대비 활동

많은 비로 인한 수인성 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우물소독제와 독충에 물렸을 때 바르는 비상약 등을 마을별로 6월 10일 지급하였다. 심한 배앓이와 건강이 약해지는 우기에 대비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6개 마을에서 기생충 교육과 13개 마을에서 약 11,500정의 구충제 알벤다졸을 투약하였다. 6월 12-15일까지는 마을별로 대청소, 도로보수 쉬람단(공동노동)을 가졌다.

● 수해가구 조사 및 짚단보급



6월 7-9일 3일 연속 내린 비로 초가지붕과 벽이 파손되어 잠자리를 잃은 수해가구에 대하여 6월 12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조사하여 총 98가구에 약 60,000개의 짚단을 지원하였다.

북한지원사업

● 라선시 의료지원

5월 17일 JTS에서는 라선시 진료소 17곳에 기초

의약품과 기초의료를 지원하였다. JTS에서는 2005년 12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이 방문하였던 승리화학 종합진료소 등 14개 진료소와 2004년 방문하여 지원하였던 굴포리진료소 등 3개 진료소에 의료지원을 하기로 합의하고 지원하였다. 이번에 지원한 의약품은 중국을 통하여 지원하여 5월 박지나 해외사업본부장님의 라선 방문시 함께 전달하였다.

● 청진시 고아원 지원

5월 23일 JTS에서는 함경북도 청진시 고아원 중등학교원 학생 1,104명에게 신발을 지원하였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청진고아원을 방문시 중등학교원 학생들이 신발이 없어 운동장에서 뛰어 놀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고와서 이루어 졌다. 이번에 지원한 신발은 중국을 통하여 청진고아원으로 전달되었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청진고아원 학생들을 위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라선시 방문

5월 11일부터 21일까지 박지나 해외사업 본부장은 라선시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라선시 17개 진료소 지원을 위해 중국에서 의약품 및 의료를 구입하고 진료소에 배분하는 것과 4월 지원하였던 비료 등 농업지원과 승리화학 종합진료소로 보낸 의료장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위해 방문하였다.

● 청진시 · 회령시 방문

6월 12일부터 19일까지 박지나 해외사업 본부장은 함경북도 청진시와 회령시를 방문했다. 청진

시의 초등학교원, 중등학교원, 삼봉농아학교, 양로원과 2000년도 지원하였던 칠보산의 개심사도 함께 방문하였다. 그리고 회령시의 방문 요청에 따라 회령시도 방문, 상황을 살펴보았다.

필리핀지원사업

● 불란 A, B 등 사업장 방문



필리핀 JTS에서는 올해 무슬림 지역인 라나오델 수르 지역의 불란 A, B 지역에 데이케어센터 건물을 완공하였다. 1월 착공한 공사는 3월 말에 완공하여 2006년 학교건축 지원사업 중 가장 먼저 사업을 마쳤다. 5월 필리핀JTS 이원주 회장의 현장 방문시 불란 A, B 지역을 방문하여 완공된 건물을 살펴보고 마을 어린이들과 간단한 환영 행사를 가졌다.

국내사업

● 공주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인도네시아 돕기 모금 진행



6월 17일 공주 청소년자원봉사센터에서 인도네시아 지진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 및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공주대앞, 신관동 롯데리아 앞에서 진행된 이날 모금에서 160,230원의 성금을 모았고 지역아동센터와 자원봉사센터에서 100,000원을 기부해 총 260,230원이 모금되었다. 이웃사랑 부단장 공주고 2학년 박종일의 12명이 팀을 이루어 피켓을 들고 거리에서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었다.

●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긴급구호 진행



5월 27일 토요일 발생한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 지역 지진피해를 접하고, 5월 29일 월요일 긴급으로 진행된 거리캠페인이 2주일동안 전국에서 진행되었다. 5월 29일은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되었으며, 총 155명이 동참하여 4,332,240원과

30엔+1달러의 성금이 모였다. 또한 2주일동안 전국에서 부정기적으로 거리에서 캠페인을 진행하여서 전 국민의 나눔 운동을 이끌어 냈다. JTS 긴급구호팀은 인도네시아 피해현장에 발 빠르게 투입되어 가장 필요한 물품인 깔개, 천막, 얇은 이불, 공구 등을 1,500여 가구에 긴급 전달하고 돌아왔다.

● 인도 모자보건캠페인, 전국행사로 진행

인도 동게스와리지역의 산모와 신생아를 위해서 국내에서 거리캠페인을 진행했다. 해마다 어린이날에 진행했던 행사를 올해는 5월 13일 전국에서 동시에 진행하게 되었으며 총 241명의 활동가들이 6,964,540원과 1위안의 성금을 모았다. 이날 이후로 특별성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전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거리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 방송인모임 '길벗' 동호회원들 인사동에 서다



6월 17일 토요일 방송인 모임인 '길벗' 동호회원들이 인도 신생아와 산모를 위해서 인사동에 나섰다. 두 달에 한 번씩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임은 작가 노희경님과 영화배우 배종옥님, 성

준기감독님 등이 함께 하고 있으며, 사전교육을 통하여 행사에 대해 충분한 공유를 하고 거리에서 성실하게 인도의 어려움을 전달하고 모금활동을 한다. 직접 거리에서 일대일로 시민들과의 만남을 통해 스스로를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도 함께 챙기는, 시대를 앞서가는 나눔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날은 17명이 함께 했으며 880,380원과 6달러 1엔의 성금을 모았다.

● 제 2회 수자타나눔장터 개최

5월 26일 금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서초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진행한 이번 행사는 20여명의 활동가들이 진행했으며, 1,074,700원의 판매수익금을 얻었다. 52여명이 무상 기증한 물품으로 장터가 진행되었으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하여 전달된다. 더운 여름 날씨를 고려하여 인도 전통 요쿠르트인 랫시와 오미자와 딸기쥬스 등이 판매되었고, 기증물품 중에서 된장과 여름용슬리퍼와 악세사리가 인기가 있었다. 초대장을 받고 행사장에 참석한 회원들도 간단한 물품을 구입하고 사리도 입어보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었고, 이날 행사는 만불신문에 기사화 되는 등 풍성하게 마무리 되었다. 제3회 수자타나눔장터는 7월 7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30분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앞에서 진행한다. 많은 분들의 성원과 기증물품을 기다린다.

● 우정국로에서 열린 연등축제에 참여

4월 30일 일요일 인도문화체험마당에 JTS홍보



부스를 진행했다. NGO단체로서 인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활동을 알리며,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도문화를 즐기며 흥겹게 함께 하는 행사였다. 인도물품을 판매하고 사리를 입어보고 짜이와 랫시를 마시며 어린이들을 위해서 미아방지용팔찌를 만들어 주고, 저금통도 분양하는 활기찬 행사였다. 해외에서 참여한 방문객을 위하여 영어통역을 위해서 두 분의 자원봉사자가 함께 해 주었다. 이날 물품판매금액은 2,029,920원으로 인도 수자타아카데미 학생들을 위하여 쓰인다.

● 인도 마을개발공사파트 담당 김재령님의 활동보고를 듣다



4월 20일 서울정토회 활동가들은 인도에서 공사파트를 맡고 있는 김재령님으로부터 인도현장

소식과 더불어 활동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과 어려움, 보람 등을 전해 들었다. 이날 활동보고는 국내 자원봉사자들에게 생생한 현장감을 붙여 넣어 주었고, 앞으로의 활동을 위한 풍부한 밑거름을 제공해 주었다.

● 서울, 대구에서 JTS 사진전 개최

새로운 형태로 회원들과 교류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JTS 사진전이 열렸다. 대구정토회에서 4월 25일부터, 서울정토회에서는 5월 24일부터 각각 2주간씩 진행되었다. 회관 전체를 전시장으로 기획한 이번 행사는 회원들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는 해외사업장에 대한 활동보고와 함께 지역에서의 새로운 형태의 문화공간으로 활용한 의미 있는 사례가 되었다.

● 사리입고 유미죽 만들기



5월 16일 화요일 오후 2시 서울정토회에서는 인도문화체험으로 인도전통의상인 사리를 입고, 유미죽을 만들어 먹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날 수자타아카데미 교가도 배웠고 곱세마리 동요를 인도어로 배워보는 재미있는 시간이었다. 앞으로도 꾸준히 인도문화체험의 시간을 마

련할 계획이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 제천지역 문화단체인 '신새벽'과 함께 한 북한돕기 캠페인



제천지역 문화단체인 '신새벽'은 지난 6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제천시 청전동 시민공원에서 6.15남북공동선언을 기념하고 남북의 화해와 통일을 염원하며 '통일문화제'를 치렀다. 제천 회원들은 이들 단체와 함께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사진부스를 설치하고 모금캠페인을 벌였다. 비록 많은 모금은 하지 못했지만 지역의 뜻있는 문화단체와 함께 연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문화단체인 '신새벽'은 평소에도 JTS를 통해 정기적인 후원을 할뿐만 아니라 6월초에 소백산에서 있었던 청년불자등반대회 전야제 풍물공연과 대동놀이 진행에 대한 사례비 전액을 북한돕기 성금으로 내놓기도 했다.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

라진·원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5월 31일 현재



라진·선봉 유치원·탁아소 결연현황

2006년 5월 31일 현재



* 회색으로 채워진 곳은 현재 지정기탁자가 부족한 곳입니다. 위의 유치원·탁아소에 지정해서 후원해 주실 분은 연락바랍니다.

* 단체명이 굵은 글씨로 표시된 것은 새롭게 후원해 주신 곳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 광주

김석순 28,350 김창수 33,120 양정자 28,450 엄덕자 15,020 영이 21,040 이선주 30,780 정광고등학교 146개 169,180 정광중학교 549개 958,730

● 대구

김대환 20,130 김민재 15,820 김순득 16,290 김정숙 24,580 모금이 10,530 무명 15,760 무명 22,070 무명 51,030 무명 33,700 박계자 51,630 박현영 10,220 사공옥숙 24,560 손창원 31,760 엄옥례 7,550 우진태권도 35,150 윤채희 122,010 이순옥 110,690 이영주 19,090 이의진 24,690 이정호 19,320 장선옥 34,270 크리스토퍼 169,170

● 대전

갈매기해물탕 28,020 길순용 24,610 김경미 14,450 김누리 43,250 김태풍 33,750 김현수 19,000 김희정 17,910 둔산 22,750 무명 18,600 무명 7,080 무명 6,100 무명 17,560 무명 5,300 무명 3,860 무명 1,880 무명 7,300 방연숙 31,880 오준석 26,640 이정선 16,430 이정진 26,830 정경주 34,080

● 동래

강양중 26,000 강양중 17,170 구선용 30,700 김민서 18,030 김순옥 23,300 김형진 26,400 무명 8,540 무명 7,570 무명 17,690 무명 11,360 무명 23,420 무명 14,180 박진현 18,570 법문주 84,200 법문주 111,160 서은경 70,420 임호 20,960 조방제 28,310 황선미 29,250

● 마산

강선월심 22,170 김정은 14,720 노미야 108,300 무명 10,420 무명 24,420 배정아 33,350 서대덕 10,000 송동훈 17,300 원협25번 4,070 원협6번 6,590 윤형조 26,030 정원희 14,000 진미희 14,480

● 서울

공경수 25,950 권구홍 20,380 기원정사 13개 449,440(김춘자 72,320 무명 5,580 무명 22,600 무명 3,490 무명 23,770 무명 68,770 무명 3,210 무명 70,170 무명 31,830 백종필 35,070 백종필 83,050 조동숙 15,210 최재광 14,370 김경애 17,370 김동연 47,800 김동연 30,320 김민성 9,960 김애경 13,760 김애숙 57,220 김애숙 47,870 김애숙 31,530 김애숙 35,210 김영란 2,260 김윤미 21,680 김인정 19,490 김재욱 21,280 김재욱 37,070 김재호 7,440 김재호 10,020 김준웅 36,670 김지명 18,990 김태권 26,900 김홍익 15,620 남소영 3,020 남양주도곡초등학교 28개 2,258,590(김명용 24,030 김채연 3,310 김태권 22,130 민해리 12,750 박찬우 21,360 장석원 16,470 1-6반 강유진 16,930 김근찬 5,990 김아현 3,000 무명 3,490 박숙원 11,590 박주현 6,050 신나영 340 심해민 7,850 유재영 5,000 이지영 7,370 정다빈 7,250 최두훈 2,860 2-4반 서동건 12,360 6-6반 김미진 580 김정은 2,450 남기태 1,350 류성민 1,600 무명 27,330 무명 2,790 신한솔 610 이경준 700 이지민 1,050) 노병덕 15,070 동국대학교 8개 144,580 류성미 25,730 무명 2,080 무명 1,500 무명 30,630 무명 25,960 무명 5,530 무명 5,700 무명 20,870 무명 7,160 무명 21,280 무명 64,110 무명 57,160 무명 43,450 무명 59,880 무명 16,390 무명 22,460 무명(가은농협) 25,560 박수현 11,700 박순철 5,760 박은우 28,500 박지원 9,980 백진주 10,630 성덕사 5개 80,940(김정은 6,480 신용원 16,620 무명 17,240 무명 18,950 최영민 21,650) 손영섭 11,750 손정숙 20,000 송영희 21,360 신영희 22,650 신인균 69,310 양필연 11,660 오용선,빛나 26,020 오혜영 14,170 우병기 39,920 우정 9,920 유나운 19,570 유성현 33,030 유은서 1,950 유은자 3,040 윤정희 21,430 이기갑 20,000 이덕기 25,540 이명희 40,360 이상순 2,340 이영재,이정하 11,430 이영재,이정하 26,340 이영재,이정하 44,400 이영재,이정하 37,350 이영주 5,380 이재현 14,900 이경건 13,800 이정자 37,280 이택건 11,960 임미라 27,030 장예진 25,550 장정희 25,420 장한나,조성준,성민 19,400 전성지 23,150 정금녀 3,100 정순례5,830 정윤환 25,860 정재섭 27,750 조경숙 32,000

아름다운세상저금통 후원금 현황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좋은벗 2,030 최미영 21,600 최평식51,080 하나원76기 23개 50,840(고승미 15,000 김명남 800 김성화 1,930 노영실 800 무명 1,000 무명 550 무명 1,400 무명 600 무명 1,100 무명 4,450 무명 700 무명 1,800 무명 2,430 무명 1,610 무명 500 무명 1,000 무명 600 무명 3,860 무명 400 배광명 6,200 이은숙 1,600 차명숙 300 한수정 2,210) 하나원79기 24개 50,550(강금주 2,520 김금주 1,150 김만성 1,130 무명 1,290 무명 2,000 무명 1,000 무명 400 무명 1,000 무명 10,100 무명 1,200 무명 1,000 무명 1,030 문영숙 2,100 박승국 1,000 박승철 1,910 신경림 1,700 오금련 1,060 유영애 1,500 이동철 1,590 이세옥 7,200 장명월 3,700 정금순 1,720 정봉순 2,250 최성국 1,000) 하나원80기 46개 63,320(김수정 1,300 김순희 1,900 라혜옥, 원미화 1,310 무명 1,550 무명 950 무명 3,150 무명 6,950 무명 950 무명 1,450 무명 1,150 무명 950 무명 400 무명 500 무명 2,000 무명 1,000 무명 1,400 무명 1,300 무명 2,300 무명 1,200 무명 1,100 무명 900 무명 1,100 무명 900 무명 400 무명 2,400 무명 900 무명 1,200 무명 1,000 무명 1,100 무명 400 무명 1,200 무명 3,500 무명 700 무명 680 무명 880 무명 1,870 무명 530 무명 710 무명 730 무명 510 유은희 3,400 유정숙 560 윤미라 850 이옥련, 최향옥 1,390 임건주 1,950 현광옥 750) 하나원81기 46개 113,320(9256 1,650 김광복 1,030 김평선 2,200 김명화 2,400 김성문 2,610 김성옥 1,590 김영옥 2,600 김은옥 4,550 김정옥 2,360 노철숙 2,950 무명 600 무명 1,150 무명 5,700 무명 1,230 무명 2,360 무명 1,450 무명 200 무명 3,500 무명 2,000 무명 900 무명 1,000 무명 650 박명화 4,690 박영애 10,000 손세창 1,000 신영희 800 안정국 2,000 안정순 10,000 양금순 2,320 원연진 1,100 이은경 2,110 이진옥 1,430 이형석 4,550 임창수 580 장천 1,450 전춘화 2,200 전해심 1,470 정영주 1,510 정영희 1,800 정해심 2,900 조철용 4,730 최영미 2,800 한동현 1,900 한인복 2,900 한춘영 2,200 현인숙 2,200) 하나원82기 25개 47,840(무명 3,400 무명 1,080 무명 2,160 무명 2,000 무명 500 무명 550 무명 250 무명 1,070 무명 1,750 무명 1,150 무명 900 무명 240 무명 1,090 무명 2,100 무명 1,000 무명 1,700 무명 6,200 무명 700 무명 2,750 무명 500 무명 280 무명 1,650 무명 1,970 무명 2,450 무명 10,400) 한상원 24,810 한승희 21,170 허영호 1,700

● 울산

권미진 26,380 김영주 29,140 무명 18,490 무명 16,610 무명 1,730 무명 21,910 안수빈 25,600 안수용 43,930 윤희철 10,080 윤희성 22,760 이미영 65,480 정인권 26,710 조인호 22,370 조현순 18,860 최성자 100,750

● 청주

김유정 1,700 김진옥 11,700 박현숙 18,740 오영주 150,650

● 해운대

강대업 21,000 김용현 12,720 김윤경 7,400 무명 20,000 무명 3,820 무명 30,690 무명 32,000 무명 7,840 무명 14,570 무명 25,000 무명 13,390 무명 28,200 무명 2,190 서준영 20,600 신진화 12,850 오인숙 23,470 옥창민 4,350 이경훈 35,000 이승철 4,210 전행열 11,980 차태순 22,080 한선우 13,570 한나무집 17,690 한정련 18,730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거리모금 현황

광주 1,769,010 대구 873,030 대전 1,305,470 마산 5,215,280 서울 11,183,941
울산 810,670 제천 564,130 청주 429,360 해운대 1,214,600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인도후원회원

P0017431	강민정	광동중학교불교학부
P0016780	강효정	
P0017424	고미숙	
P0014556	고창영	
P0008030	공양숙	
P0015427	곽진선	
S0017564	광동중학교불교학부	
P0016940	권영구	
P0002709	길주옥	
P0016353	김경숙	
P0017470	김경태	
P0016157	김경화	
P0003929	김경희	
P0010268	김광원	
P0009905	김근식	
P0008233	김명희	
P0017284	김명화	
P0015275	김민경	
P0017115	김상범	
P0010365	김상우	
P0017277	김상희	
P0017263	김상순	
P0002193	김승수	
P0017469	김영길	
P0009769	김영선	
P0004651	김영숙	
P0006323	김용숙	
P0002826	김용순	
P0016906	이혜연	
P0015040	김일윤	
P0017196	김재희	
P0016726	김정선	
P0017029	김정연	
P0017493	김정윤	
P0016472	김정희	
P0017035	김중광	
P0016907	김지향	
P0017471	김초은	
P0003591	김태오	
P0011625	김혜숙	
P0017213	남울산라이온스	
P0016087	노상철	
P0004483	노숙경	
P0002877	노희경	
P0015975	노영영	
P0017708	동영제	

P0016873	정광순	
P0017413	정선옥	
P0017036	정승아	
P0016633	정정우	
P0003848	정정숙	
P0016998	정준준	
P0017057	정철상	
P0017113	정희경	
P0016212	조배원	
P0005126	조은순	
P0017376	지종순	
S0017204	지지사금강회	
P0017390	진경자	
P0017425	진무자	
P0017261	최병길	
P0016782	최병훈	
P0013483	최복순	
P0004438	최완옥	
P0017421	최찬연	
P0005754	최청운	
P0016981	코디 E & I	
P0004850	표연순	
P0016787	하석정	
P0016849	허죽시	
S0017484	(주)디엘아림건설	
P0016788	강민석	
P0017473	강석균	
P0016780	강효정	
P0016644	강희중	
P0005196	강현숙	
S0015728	광야교회	
P0015256	구선용	
P0016781	금순옥	
P0009649	김경란	
P0016630	김경화	
P0015189	김기왕	
P0014941	김대중	
P0002453	김미화	
P0017284	김미화	
P0016983	김수경	
P0009693	김순란	
P0016136	김윤식	
P0016906	김이혜연	
P0017196	김재희	
P0016726	김정선	
P0016873	김정철	
P0016907	김지향	
P0009646	김채현	
P0017423	김충환	
P0011399	김정민	
S0013710	개장모임	
P0016087	노상철	
S0017492	동남문우회사모회	
P0016278	박갑규	
P0012327	박상호	
P0016610	박성미	
P0016280	박수정	
P0003240	박은선	
P0016946	박주은	
P0016916	박지은	
P0016801	박창호	
P0016783	배미영	
P0017266	배수환	
P0016789	백사연	
P0017487	서영자	
P0017494	서철은	
P0016947	석순숙	
P0015021	신상섭	
P0016779	심경숙	
S0016908	아기북친구들	
P0016777	안재봉	
P0017133	양지진	
P0013468	우혜인	
P0017474	유인철	
P0015906	이명화	
P0016209	이미연	
P0015192	이선영	
P0016848	이성수	
P0016632	이수연	
P0016163	이현태	
P0016635	임주현	
P0008149	임효진	
P0016480	장승미	
P0016764	장아연	
P0017032	전문표	
P0016639	정나원	
P0016919	정현도	
P0016633	정우현	
P0016640	정자현	
P0016641	정효재	
P0008336	최영숙	
P0013269	최윤석	

북한어린이결연

신규회원(개인,단체)명단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P0017421 최진연	P0016947 석은숙	P0012754 서동영	P0011399 김현정
P0016981 코디 E & I	P0008852 신세권	P0016947 석은숙	P0016278 박갑규
P0016787 하석정	P0010015 심학순	P0016850 석지오	P0012327 박상호
P0009366 황상숙	S0016908 아가복친구들	P0008754 설상수	P0016280 박수정
P0016631 황수대	P0003810 윤명옥	P0016803 윤현식	P0014013 박희희
	P0013415 이우희	P0016632 이수연	P0016783 배미영
	P0011400 이향순	P0016993 이지영	P0016947 석은숙
	P0007939 임정이	P0008149 임효진	P0016634 임기혜
	P0008149 임효진	P0016480 장승미	P0008149 임효진
	P0016969 조미애		P0016480 장승미
	P0003872 현영실		P0016918 정기준
			P0016467 정수영
			P0016980 주대호
			P0016787 하석정

북한건설후원

P0003914 강양중
P0014282 권미순
P0003933 김명숙
P0011151 김세인
P0014663 김수형
P0017028 김형진
P0006211 김형진
P0014043 김호상
P0014748 문금숙
P0003990 박명숙
P0004001 박영옥
P0007041 박현이
P0014013 박희정
P0016917 부현철

결핵퇴치후원

P0010268 김광원
P0017485 김대근
P0001738 김민옥
P0015148 김선희
P0009693 김순란
P0009769 김영선
P0017486 김영아
P0016726 김정선

아프간후원

P0016636 강대상
P0017472 강용운
P0005196 고현숙
P0010268 김광원
P0002302 김도형
P0002453 김미화
P0017284 김미화
P0011408 김봉정
P0016726 김정선
P0016907 김지향

*후원회원 가입신청을 하신 분들 중 첫 후원금을 내신 분만 신규회원으로 등록되오니 참고 바랍니다.

| 물품후원 |

2006년 4월 26일부터 2006년 6월 25일까지



1. 미룩사 의류 등 물품 1박스 (총 2,600,000원 상당)
2. 금천선원 의류, 비누 등 물품 3박스
3. 정완스님 의류 등 물품 1박스
4. 보원샵 아동용점퍼 300점 (총 2,100,000원 상당)
5. (주)메리컨 이불 15몽치 (총 1,500,000원 상당)
6. (주)우연 아동용 운동화 650켤레
7. 동학사 불서각 양초 1박스
8. 전명숙 원단 2롤 1몽치
9. 전희옥 의류 250여점 (총 3,000,000원 상당)

*제2회 수자타 나눔장터에 물품 기증하신 분 (가나다 순)

권혜숙, 김국자, 김문주, 김민정, 김순연, 김안나, 김애경, 김영매, 김영자, 김은숙, 김증자, 김현숙, 김희선, 무주상 4명, 박명귀, 박진아, 범해성, 보은행, 신성애, 양윤덕, 오정숙, 유명규, 유미경, 이기혜, 이수진, 이영주, 이정숙, 이정자, 이종애, 임순옥, 장소현, 장영숙, 장현숙, 장혜진, 전성자, 전성지, 정근혜, 정다영, 정은주, 정준식, 조선경, 주점란, 채영미, 최양희, 현영자, 홍은실, 황희숙, 희열광 총 51명

특별기부금 명단

특별후원금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33차 일상에서깨어있기 476,910원	김용 400,000원	박윤덕 100,000원	임영광 120,000원
34차 일상에서깨어있기 90,000원	김익권 30,000원	박윤희(북한의료품보내기) 800,000원	장서윤(어린이날 기념) 150,000원
고창무(고문이, 김태선 영가) 200,000원	김인하 5,000원	배상희 200,000원	재단법인정토회(곽진섭) 2,000,000원
공양숙(여지영 생일축하금) 100,000원	김정대 170,000원	백혜인 100,000원	정권화 81,000원
곽봉준 4,000,000원	김지연 50,000원	설상수(결핵퇴치) 150,000원	조혜진(이석민 생일축하금) 50,000원
권영구 500,000원	김태규 2,000,000원	실상사작은학교 592,50원	최근대 100,000원
김경란 20,000원	김태정 300,000원	아기북친구들 200,000원	최윤석 50,000원
김경실(수자타아카데미기금) 300,000원	김태형(인도우물지원) 100,000원	심길보 10,000원	한영태(북한어린이 영양식) 60,000원
김무로 100,000원	남울산라이온스 500,000원	오숙정 39,000원	함용마 1,000,000원
김성란 20,000원	동신항운주식회사 대표 송건 500,000원	오인숙(이승희님 생일축하금) 100,000원	황승오(북한유치원이불지원) 40,000원
김순덕 50,000원	동영제 100,000원	원문 500,000원	
김영선(구민석 생일축하금) 40,000원	묘혜(수자타아카데미생들공양) 300,000원	윤영주 10,000원	
김영선(김익권 생일축하금)	묘혜(유영금 및 각국절스님공양비) 1,000,000원	이금봉 100,000원	
	무기명(인도사람들에게한끼식사대접) 700,001원	이선영(북한어린이 지원) 1,000,000원	
		임남환 700,001원	

북한비료보내기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강 양 중 10,000원	류 홍 기 1,000,000원	심 학 순 10,000원	전 철 범 10,000원
고 영 애 10,000원	문 금 숙 30,000원	안 순 자 10,000원	정 승 아 10,000원
공 원 란 30,000원	문 길 련 5,000원	양 은 지 10,000원	정 정 숙 5,000원
공 원 란 100,000원	박 근 숙 100,000원	양 은 지 10,000원	조 미 애 20,000원
곽 영 화 300,000원	박 기 순 10,000원	오 동 진 20,000원	조 윤 희 10,000원
권 미 순 20,000원	박 명 숙 10,000원	원 치 황 500,000원	천 정 숙 10,000원
김 명 숙 50,000원	박 선 영 30,000원	윤 명 옥 20,000원	최 재 두 50,000원
김 민 정 100,000원	박 영 옥 10,000원	이 선 주 10,000원	한 귀 분 10,000원
김 수 익 34,000원	박 영 옥 10,000원	이 심 용 50,000원	한 영 태 50,000원
김 인 숙 10,000원	박 임 영 20,000원	이 인 표 20,000원	한 영 태 60,000원
김 창 연 100,000원	박 자 애 20,000원	이 춘 곤 10,000원	한 영 태 50,000원
김 태 호 70,000원	박 현 이 100,000원	이 향 순 15,000원	현 영 실 100,000원
김 형 준 90,000원	보 광 50,000원	이 희 자 10,000원	황 선 옥 10,000원
김 형 진 10,000원	서 지 현 30,000원	임 정 이 10,000원	황 승 오 40,000원
김 호 상 100,000원	신 세 권 19,000원	임 창 옥 30,000원	

※ 총 액 3,648,000원

특별기부금 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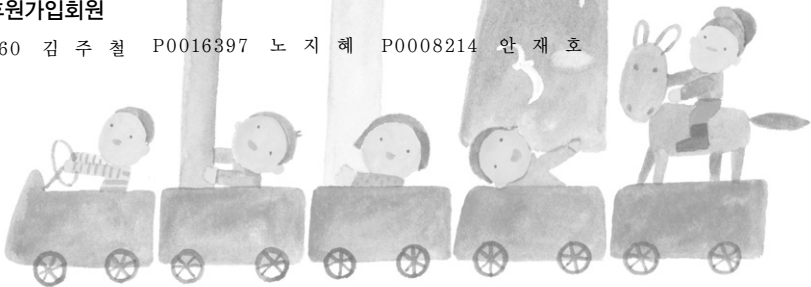
인도모자보건사업

[2006년 5월 1일부터 2006년 6월 16일 현재]

정상일	60,000원	전병휘	50,000원	이정석	40,000원	이건우	50,000원
김인숙	20,000원	김모비	20,000원	김용순	20,000원	김영선	30,000원
양은지	10,000원	김정수	10,000원	유효순	200,000원	장성호	50,000원
이선주	5,000원	김영선	10,000원	최문선	50,000원	김춘생	100,000원
무주상	3,000원	노희경	50,000원	김정연	10,000원	석지오	100,000원
무주상	20,000원	최청운	3,000,000원	김일운	50,000원	손정남	300,000원
무주상	38,000원	백성희	300,000원	김명희	50,000원	강시재	30,000원
무주상	197,000원	조은순	10,000원	김용주	50,000원	송원	100,000원
전선희	20,000원	김영숙(대해심)	20,000원	권보경	50,000원	김혜정	30,000원
이필순	55,000원	심경택(영가)	20,000원	장숙희	100,000원	김경실	100,000원
박환서	100,000원	곽진선	5,000원	이은선	5,000원	최완옥	30,000원
박선희	50,000원	김승희	15,000원	실상화	50,000원	배상희	15,000원
김대용	50,000원	신성애	20,000원	정심행	10,000원	김민욱	50,000원
김종복	50,000원	박정덕	30,000원	이상훈	10,000원	김명진	15,000원
이금봉	30,000원	최웅철	35,000원	김용식	10,000원	안양진	100,000원
김남식	300,000원	고창영	20,000원	이승숙	20,000원	김향아	100,000원
이용규	50,000원	엄성민	50,000원	이인숙	50,000원	박태정	100,000원
이회관	100,000원	허경미	10,000원	김진옥	100,000원	류효열	100,000원
곽영술	300,000원	김나영	5,000원	민안자	10,000원		
정규희	50,000원	김유현	5,000원	연화경	10,000원		
김현수	30,000원	이은경	30,000원	박형숙	10,000원		
배승태	20,000원	표연순	20,000원	김근성	10,000원		
최재두	50,000원	김희라	10,000원	박종순	5,000원		
박영옥	10,000원	김근식	1,000,000원	조안락심	50,000원		
신영숙	50,000원	양보라	15,000원	기원규	500,000원		

◆정기후원가입회원

P0015060 김주철 P0016397 노지혜 P0008214 안재호



※총 액 9,298,000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명단

(2006년 5월 1일부터 2006년 6월 16일 현재)

한 국

배경령	100,000원	이상무	10,000원	강복웅	50,000원	김만식	5,000원
정양수	100,000원	이은순	100,000원	서부춘	10,000원	홍희분	5,000원
배기덕	500,000원	이준석	100,000원	신동현	300,000원	이규만영가	10,000원
최광수	100,000원	장승미	100,000원	이선영	2,000,000원	오동진	10,000원
송현자	30,000원	정채규	10,000원	강준우	100,000원	조덕희	10,000원
김명숙	30,000원	조미경	100,000원	김기원	77,777원	조용우	50,000원
박지영	5,000원	조영재	50,000원	남현승	10,000원	조용성	50,000원
곽웅철	30,000원	직지사금강회	135,000원	남현정	10,000원	이선주	5,000원
교사 일상에서 깨어있기	404,000원	황혜경	500,000원	청주이숙희	20,000원	김인숙	5,000원
권영숙	100,000원	강분석	20,000원	허영희	50,000원	최현	5,000원
김덕정	20,000원	권순범	64,000원	마경숙	100,000원	유미라	50,000원
김도영	100,000원	금필선	3,000원	노혜숙	30,000원	이성희	50,000원
김영란	30,000원	김대하	10,000원	색즉시공	500,000원	정지선	50,000원
김지연	30,000원	김문희	50,000원	류현복	100,000원	한혜자	20,000원
김천석	20,000원	김영주	30,000원	정명숙	10,000,000원	한주신	100,000원
남원근	30,000원	박선영	10,000원	주선자	30,000원	김유진	60,000원
남은주	100,000원	박은주	50,000원	김호상	30,000원	장수영	5,000원
맹명숙	50,000원	변순옥	10,000원	심란	30,000원	임숙이	20,000원
명	50,000원	신동열	50,000원	김봉주	50,000원	장서윤	10,000원
무기명	100,000원	신미경	10,000원	이우희	30,000원	구언련	10,000원
무기명	300,000원	신진철	15,000원	박근숙	100,000원	신단아	30,000원
박윤덕	30,000원	유인경	20,000원	정영숙	10,000원	김애경	50,000원
박을화	30,000원	이견지	10,000원	정지철	5,000원	이승희	10,000원
박종향	3,000원	이병순	200,000원	정지숙	5,000원	배명자	25,000원
배남주	10,000원	이복림영가(장부영)		정지남	5,000원	이영조	40,000원
백석희	50,000원		100,000원	정지혜	5,000원	변정	30,000원
서동우	10,000원	이선주	5,000원	이남경	5,000원	이태성	30,000원
신상룡	10,000원	이현옥	50,000원	김학숙	5,000원	김동균	200,000원
신영희	50,000원	이후근영가	100,000원	김창기	5,000원	이금순	200,000원
여수연	10,000원	임영광	100,000원	김아영	5,000원	장혜은	50,000원
여현주	30,000원	정형길	50,000원	김덕기	5,000원	엄성민	15,000원
오현경	100,000원	차상련	50,000원	김효정	5,000원	신원선	1,000,000원
우영옥	10,000원	김희준	50,000원	김현지	5,000원	조정숙	20,000원
윤문식	5,000원	문정호	100,000원	김선기	5,000원	권명숙	50,000원
윤영화	20,000원	박영숙	1,000,000원	김주현	5,000원	김미화	10,000원
이건주	50,000원	장완수	50,000원	김학의	5,000원	황성숙	5,000원
이덕기	50,000원	서광일	10,000원	김학영	5,000원	김바다	100,000원
		양수지	50,000원	김학준	5,000원	박동규	30,000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명단

(2006년 5월 1일부터 2006년 6월 16일 현재)

석은숙	30,000원	안병걸	50,000원	같은속	30,000원	정광원	100,000원
이순재	50,000원	권지은	20,000원	함용마	1,000,000원	무주상	100,000원
서정현	30,000원	백애란	20,000원	한영태	100,000원	무주상	200,000원
공종임	20,000원	박경순	15,000원	일깨	10,000원	조형우	10,000원
김경희	20,000원	북성로석쇠불고기		박태현	10,000원	조형찬	10,000원
신명순	50,000원		10,000원	김운태	50,000원	김치훈	150,000원
김태권	30,000원	김명선	16,428원	전철범	10,000원	손미옥	20,000원
장유섭	1,000,000원	장선옥	100,000원	장소현	30,000원	손명옥	5,000원
김미혜	30,000원	방판칠	1,000,000원	이정혜	10,000원	이봉희	50,000원
고현숙	100,000원	곽영술	1,000,000원	신경애	100,000원	최재경	30,000원
손인아	50,000원	곽영화	210,000원	김승희	20,000원	안순균	1,000,000원
권정구	50,000원	박영민	200,000원	정인권	300,000원	방미애	30,000원
권정희	50,000원	원치황	100,000원	신새벽	200,000원	신승희	50,000원
김남순	500,000원	김종복	100,000원	유미영	100,000원	노일순	10,000원
김정환	1,000,000원	이귀용	50,000원	박소영	30,000원	노경화	10,000원
대각정사	500,000원	박선희	50,000원	유명규	50,000원	김영운	10,000원
이규환	50,000원	유인자	30,000원	임순옥	30,000원	황정완	10,000원
김하승	50,000원	이금봉	30,000원	김애자	10,000원	김용주	1,000,000원
김환기	100,000원	방연숙	30,000원	김주철	50,000원	기원규	500,000원
송정현	50,000원	김혜숙	10,000원	김순연	45,000원	이대경	50,000원
이혜산	50,000원	김현화	10,000원	이규태	50,000원	김하식	100,000원
박미성	100,000원	송부순	10,000원	김애자(법명화)	30,000원	신영애	50,000원
35차 일상에서 깨어있기		박정선	5,000원	김옥정	10,000원	신동현	1,000,000원
	386,850원	홍사숙	20,000원	윤숙영	30,000원	김미현	50,000원
김효경	50,000원	김정애	20,000원	무주상	200,000원	박형주	200,000원
무기명	500,000원	정규희	20,000원	정승아	50,000원	박해자	50,000원
김지향	100,000원	신현국	50,000원	조규현	30,000원	무기명	200,000원
박선화	100,000원	김대웅	50,000원	서지현	30,000원	이숙진	30,000원
이윤희	100,000원	고창무	200,000원	구경숙	10,000원	지은아	50,000원
노승용	25,000원	해운대뽕굴터2명	7,000원	황선영	10,000원	아름다운가게	
강윤규	50,000원	정귀점	2,000원	강순옥	10,000원		20,000,000원
배승태	30,000원	김차순	30,000원	류숙희	20,000원	김기영	50,000원
김호상	10,000원	백정애	50,000원	박길미	20,000원	무기명	1,000,000원
최재두	50,000원	김민정	100,000원	최정숙	10,000원	조영선	50,000원
김진욱	50,000원	최지혜	10,000원	류동훈	200,000원	신세권	30,000원
최옥순	30,000원	노준식	20,000원	윤희자	11,000원	문희정	50,000원
양창순	50,000원	장성한, 장석우	50,000원	최성자	300,000원	박빈아외 13명	275,000원
차상옥	30,000원	김운태, 구미경	20,000원	김병현	26,000원	차상옥	30,000원
송유은	30,000원	황병일	50,000원	정서진	100,000원	이근만	100,000원
김대환	1,000,000원	강나성	100,000원	정지원	100,000원	김석용	100,000원

인도네시아 지진피해 긴급구호금 명단

(2006년 5월 1일부터 2006년 6월 16일 현재)

조은순	10,000원	김영숙	20,000원	강민주	50,000원	박미경	10,000원
김정임(길주옥)	40,000원	배준우	50,000원	김근영	80,000원	이주영	10,000원
윤표	20,000원	이현	10,000원	김선미	100,000원	강희숙	100,000원
이태성	30,000원	이현정	30,000원	정선희	10,000원	정귀조	300,000원
윤효남	10,000원	정선옥	20,000원	진택근	50,000원	서수경	30,000원
김도형	50,000원	김택엽	20,000원	포항교사불자회		이현정	10,000원
김애자(정각심)	30,000원	김민정	10,000원		100,000원	한희진	30,000원
노승용	100,000원	김종숙	20,000원	황인영	50,000원	박경남	10,000원
류흥기	20,000원	임지진	10,000원	노민정	6,000원	박정운	10,000원
박승우	5,000원	전은철	50,000원	박영혜	30,000원	권순범	50,000원
지우	20,000원	QNFWK	100,000원	오현경	30,000원	도임자	300,000원
고옥순	159,700원	송민철	100,000원	노희경	\$ 50	울산정토회	20,000원
오지현	20,000원	채성진	5,000원	워커힐 델리(직원식당 내)		이정선	30,000원
김가연	30,000원	강영순	30,000원		17,740원	김상태	50,000원
김정훈	10,000원	이수연	30,000원	박빈아	30,200원	공주청소년지원봉사센터	
유효순	200,000원	최우진	100,000원	김미영	21,940원		260,230원
이영주	30,000원	민남식	10,000원	최은실	19,830원	김정화	100,000원
안재로	50,000원	박철용	50,000원	서수정	5,000원	구포중학교	130,000원
윤경화	10,000원	정선옥	30,000원	서상호	20,000원		
진명숙	50,000원	진명숙	50,000원	윤선애	20,000원		

미국 LA

이충경	\$ 200	김명례	\$ 100	장철호	\$ 300	김관건	\$ 500
한영홍 외	\$ 200	외	\$ 300	일요법회	\$ 227	외	\$ 250
신복례	\$ 100						

미국 워싱턴

김태우, 한승희	\$50	이희자	\$20	민덕홍, 김순영	\$50	신은미, 방영남	\$200
오명석, 윤시내	\$100	최창용, 김지애	\$40				

필리핀 마닐라

노재국 1,000,000원

태국 방콕

유효순	200,000원	홍정혜	\$52	황소연	\$57	이경란	20,000원
-----	----------	-----	------	-----	------	-----	---------

※총기부액 67,948,695원 + \$2,796 (총 411명)

사) 한국JTS기금사용 결과 보고

(2006.01.01~05.31)

〈수입〉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사업비 보조금	121,500,000	
후원금	462,985,059	정기, 특별후원금
모금활동 수입	56,030,593	돼지저금통 포함
이자수입	42,248,168	
전기이월금	9,013,070	
계	691,776,890	

〈지출〉

(단위 : 원)

구분	금액	비고
북한사업비	429,760,242	비료지원외
인도사업비	140,055,462	
기타해외사업비	61,120,937	인도네시아지진, 쓰리랑카, 필리핀외
국내사업비	25,594,550	
관리운영비	35,245,699	
계	691,776,890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명단 확인 바랍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2006년 5월 31일까지 은행으로 성금을 보내주셨으나 주소나 전화번호 그리고 후원분야 등의 정보가 부족하여 후원회원으로 등록되지 않으신 분들의 명단입니다.

이름이 있으신 분들은 꼭 연락바랍니다. (입금일, 이름, 입금은행명 순)

*2회이상 입금하신 분은 1회 내역만 실었습니다.

4/1	최지영	국민	4/14	정재성	국민	4/24	허태운	제일	5/2	최동언	우체국
4/3	곽형길	농협	4/16	임재찬	농협	4/25	강세환	조흥	5/2	최한운	국민
4/3	김도영	외환	4/17	강명순	국민	4/25	김윤희	국민	5/3	임지영	국민
4/3	김도현	외환	4/17	김애숙	국민	4/25	류영호	하나	5/4	손초순	농협
4/3	김선옥	농협	4/17	김점순	농협	4/25	문화경	농협	5/4	이현구	국민
4/3	백석희	하나	4/17	박상아	농협	4/25	여정애	우체국	5/8	박선영	국민
4/3	이경선	농협	4/17	박순경	우체국	4/25	유희연	조흥	5/9	박다솜	조흥
4/3	이남숙	국민	4/17	송진숙	농협	4/25	이부건	국민	5/10	손승완	농협
4/3	이효정	조흥	4/17	심정실	국민	4/25	이현미	조흥	5/10	최영숙	조흥
4/3	정은선	농협	4/17	정현아	우체국	4/25	전우정	국민	5/12	심지연	우리
4/4	백을순	농협	4/17	조명순	우체국	4/25	정영옥	국민	5/14	홍지영	국민
4/4	신인균	국민	4/17	조정숙	하나	4/25	주용운	기업	5/15	이창재	국민
4/4	이현정	국민	4/18	김미경	농협	4/26	강성옥	국민	5/15	조영순	국민
4/5	강현주	농협	4/18	김선미	농협	4/26	박옥순	제일	5/16	이태희	국민
4/5	김기환	농협	4/18	송민철	국민	4/26	배재석	외환	5/18	박정현	국민
4/5	임소영	조흥	4/18	이화순	농협	4/26	홍연년	국민	5/19	손영섭	국민
4/5	하효남	조흥	4/19	진택근	농협	4/27	김지현	농협	5/22	김문희	농협
4/7	김문기	외환	4/19	한만석	농협	4/27	김홍규	국민	5/22	조성현	국민
4/7	이연숙	우체국	4/20	권대현	외환	4/27	박수현	국민	5/23	권연수	국민
4/8	장병대	농협	4/20	박남범	우체국	4/27	이만덕	하나	5/25	도중득	기업
4/10	노미선	국민	4/20	신동호	국민	4/28	성불하세요	국민	5/25	장선옥	농협
4/10	노재성	농협	4/20	연미경	우체국	4/28	이경열	조흥	5/29	김민정	국민
4/10	백경희	농협	4/20	유상혁	국민	4/28	정순임	농협	5/29	채성진	국민
4/10	손순호	외환	4/20	윤길순	농협	4/28	최태연	국민	5/30	김덕엽	국민
4/10	임소현	농협	4/20	지모사	국민	4/29	부채감사합니다	국민	5/30	김정자	농협
4/10	장경숙	하나	4/20	홍윤숙	하나	5/1	민경희	국민	5/30	김종숙	국민
4/10	조현정	조흥	4/20	황현주	하나	5/2	김갑순	농협	5/30	윤정희	조흥
4/10	최명임	조흥	4/21	김영찬	조흥	5/2	김세준	우리	5/30	임지진	국민
4/11	신순영	신한	4/21	변성운	농협	5/2	류은화	하나	5/30	임창숙	농협
4/11	양경철750603	국민	4/21	손광희	조흥	5/2	신현정	조흥	5/30	전은철	국민
4/11	오종석	국민	4/21	차윤실	국민	5/2	이종구	농협	5/30	QNFWK	국민
4/11	임미라	국민	4/22	경시모	우체국	5/2	이현미	우체국	5/31	김미정	국민
4/11	제3세계	조흥	4/24	이성옥	농협	5/2	임영해	농협	5/31	박찬문	국민
4/12	강해수	농협	4/24	정진숙	우리	5/2	장진숙	조흥			

JTS 회원국에서 알려드립니다

● 명단 확인 바랍니다.

개인명의(예금주 : 최석호)로 된 통장을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명단에 계신 분들은 소시지 뒷편에 있는 구좌로 변경 부탁드립니다.

- 국민 086-21-0466-356
고민재(보광빌딩), 윤성희, 박순천, 양태희, 김영자, 봉금례, 권명숙, 유상열
- 농협 044-02-072021
석미경, 김찬욱, 정환호, 변은아, 장일우, 이주엽, 김상호, 유상완, 김수현
- 우리 430-07-075428
최용재, 최금숙
- 우체국 013755-02-022689
김재홍, 김누리
- 하나 103-230740-01104
한성희, 박명기
- 농협 100080-51-033509
한해숙, 김선옥, 김동숙
- 외환 093-19-24002-8
진영희
- 조흥 348-04-303273
전정란

“제 3차 수자타 나눔장터가 열립니다”

인도 등게스와리 지역의 수자타아카데미 학새을 돕기 위한 나눔의 장터로 음료수와 옷가지, 인테리어용품, 인도 물품 등을 판매 할 예정입니다.

수자타아카데미 어린이들의 생활 사진전도 하고 사리입은 어여쁜 봉사자들이 함께 합니다. 특히 이번 3차 나눔장터에서는 독일 가곡, 한국 가곡, 수자타아카데미 교가 부르기, 사리 입어보기 등을 함께하는 문화행사 시간도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6년 7월 7일(금) 11시~13시 30분
- 장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문앞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6번출구 → 300m직진)
- 문의 : (사)한국 JTS / www.jts.or.kr / 서울정토회 복지사업부(☎02-587-8753)

* 기증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옷가지, 식기류, 인테리어용품 등등 나눔장터에서 팔수 있는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책을 기증해 주시면 제 3차 수자타 나눔장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오미자차 등의 시원한 음료를 판매할 예정입니다.

본인이 컵을 가져오시면 50% 할인된 가격에 음료를 드실 수 있습니다.

* 초대장을 가져 오시면 500원 할인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 우천시에도 진행합니다.

(사)한국JTS CMS 출금이체신청서 안내

1. CMS는 (사)한국JTS(이하 JTS)에서 정기적으로 금융결제원을 통해 회원님들이 거래하는 은행에서 직접 약정된 후원금을 인출하는 시스템입니다.
 2. 출금이체약관 동의서는 후원금 출금시 임의로 CMS 도용을 막고, 후원자와 JTS간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절차입니다.
 3. CMS를 이용하시는 회원님들은 후원금을 인출할 통장의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셔야 합니다.
 4. 후원자와 예금주 명의가 상이한 경우에는 반드시 예금주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5. 본 단체는 회원님과 약속한 출금 날짜 25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과 후원기간동안만 별도의 통지 없이 후원금을 인출할 것입니다.
 6. 정해진 기일에 인출이 없을 경우, 다음달에 CMS로 2달분 후원금을 인출하거나 임의로 날짜를 정해서 인출하지 않습니다.
 7. CMS 신청은 출금이체약관에 후원회원 본인의 직인 혹은 서명이 있어야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실 분은 출금이체 약관을 꼭 읽어 보시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행 입금시 계좌번호

예금주 : (사)한국제이티에스

국민은행	086-01-0339-254
국민은행	086-01-0339-246
농협중앙	044-01-094677
우리은행	430-04-119833
외환은행	108-22-03140-0
제일은행	427-10-011141
조흥은행	348-01-111624
하나은행	103-230740-00104
신한은행	260-05-011808
기업은행	216-043061-04-013
우체국	013755-01-003667
국민은행	075601-04-000298

(우리가 함께 여는 아름다운 세상
돼지저금통)

CMS 출금이체 약관

1. 앞면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은행 앞으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지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한국JTS)이 정한 지정출금일(휴일인 경우 익영업일)에 출금대체납부하여 주십시오.
2.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3. 지정출금일에 동일한 수종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우선순위는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4.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5.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기로 하며 청구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기로 합니다.
6.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영업시간내에 입금된 예금에 한하여 출금처리됩니다.
7. 출금이체 해지 요청시 동일계좌에 동일 수납기관으로 여러건의 출금이체신청이 존재할 시 은행은 납부자의 요청대로 처리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수납기관과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문의 02-587-8992 / E-mail : jtsmember@jts.or.kr(담당자 : 정한정)